

## 重工業 기술입국의 요람

現代重工業株式會社

現代重工業은 1973年 12月 창립된 이래, 國內 조선중공업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또한 수출산업의 건인차로서 國家經濟發展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립 당시 조선소로 발족하였으나, 1976년에는 10억불상당의 SAUDI ARABIA 주베일 산업항공사를 수주하는등 급신장을 거듭하여 국내 프랜트 産業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의 重工業産業이 세계속으로 웅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원래 重工業分野는 노동집약적이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잘 훈련된 人的資源의 확보없이 성장 불가능한 바, 現代重工業은 초기의 한국의 중공업분야를 주도하면서 많은 기술인력을 훈련, 배출하여 후발업체가 조속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先進重工業國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現代重工業은 그 동안의 변혁을 거처오면서 현재는 조선, 프랜트, 해양, 엔진등 4個 事業部로 진용을 갖추어 전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하여 오늘도 2만2천명의 종업원이 한마음이 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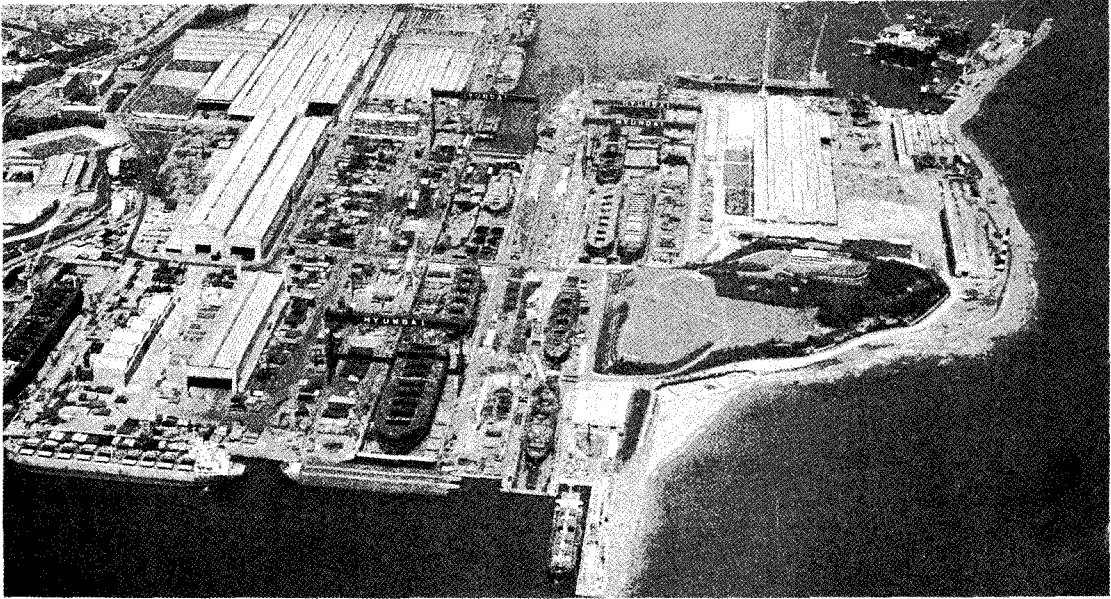
각 사업부의 主要現況과 實績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조선사업부

단일 조선소로서 年間 건조능력 250만 G/T(400만 DWT)의 세계최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한편, 척당 최대건조 능력은 100만톤에 이른다. 동 사업부의 건조가능선형은 유조선 을 비롯하여 각종화물선, 시추선, BARGE, LNG선, LPG선, 준설선, 여객선등 거의 모든 선박을 망라하고 있다.

### II. 프랜트사업부

각종 산업설비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 에너지관련 發電設備 部門은 수·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마카타이프 및 리비아의 미수라타 화력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고리원자력 발전소, 월성원자력 발전소 건설참여 및 사용후 핵연료 수송용기의 개발을 통하여 原子力發電設備 分野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밖에 제철설비, 수력설비, 항만하역설비,



운반기계설비, 시멘트설비, 정유공장설비, 석유화학설비, 각종공해방지용 환경처리 PLANT 건장설비, 기타 산업설비 및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에서도 國內外市場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Ⅲ. 해양개발사업부

해양개발사업부에서는 육상철구조물 및 해양원유생산설비의 제작, 설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美國 EXXON사의 초대형 해상 JACKET, 印度 ONGC의 봄베이 해상 공사등이 있으며, 국내실적으로는 대한생명빌딩과 진도 연륙교 공사등이 있다.

### Ⅳ. 엔진사업부

한때 독립된 법인체로 분리된 바 있었으나 최근 다시 합병되었으며, 동 사업부는 선박추진용엔진과 선박발전용엔진을 비롯하여 소수력터빈 및 상하수처리설비, CNC PLANO MILLER, CNC 대형선반등을 製作하고 있다.

상기한 각 사업부의 生産技術向上 및 研究

開發 육성을 위하여 석·박사 81명을 비롯한 210명의 연구원이 선박해양연구소와 산업기술 연구소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國內 프랜트産業의 발전의 관건은 무엇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술력 증대에 있는만큼, 기술력향상 및 자원의 최적배분 차원에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쟁풍토가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시책은 합리적으로 시정되어 國際化 및 開放化時代에 걸맞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다.

重工業分野는 경공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안정 및 노사관계 안정에 힘입어 목표성장을 달성할 때 國家經濟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대할 것이므로, 現代重工業의 전 종업원은 올해 매출목표 2조원 및 수출목표 16억불의 달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하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 모든 정성을 쏟아 “현대”의 혼을 불어 넣겠다는 “한마음 운동”을 전개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울산 미포만의 기적이 韓國의 重工業史에서 제2의 도약적 발판이 될 날도 멀지 않다.